

금주의 농사메모

기 간 2022년 4월 24일 ~ 2022년 4월 30일
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내

용

벼농사 못자리 설치 및 관리에 신경 쓰고, 고구마 육묘 관리, 노지 고추 옮겨심기 및 마늘·양파 포장관리를 철저히 하고, 개화기 과원 관리에 힘쓴다.

1. 벼농사

- 부직포 못자리를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저온장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부직포 육묘는 종자최아(1mm 내외) → 파종 → 간이출아 → 못자리 치상 → 육묘 상자 물주기 → 부직포 피복 순으로 한다.
- 부직포 피복 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을 상자 옆에 1~1.5m 정도 간격으로 엮어 고정하여 준다.
- 묘판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생육장해를 받아 모가 고르지 못하고 과습하면 모가 쓰러지거나 뿌리 얽힘이 불량해지므로 물주는 양과 횟수를 조절해야 한다.
- 들뜨모 발생원인은 흙덮기로 사용한 흙이 점질토인 경우, 종자를 배게 뿌린 경우,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, 흙덮기 후 물주기를 하면 발생하는데 육묘 중 들뜨모가 발생된 경우에는 상자에 물대기를 하며 뿌리가 노출된 모는 흙을 더 뿌려준다.

2. 밭작물

- 고구마 육묘에서 상토는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며 건조하면 잎이 작고 고구마의 형성이 불량한 묘가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관수해야 한다.
- 고구마 싹이 5~10cm 정도 자라면 따뜻한 날 한낮에 2~3시간 정도

하우스 측창을 열어서 묘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고, 싹이 20~25cm 정도 자라면 하우스 환기를 자주 하여 묘가 웃자라지 않도록 한다.

- 고구마 묘는 먼저 자란 것부터 3~4회에 걸쳐 잘라 심는데, 자르기 적기는 8~9마디 이상 자란 시기이며 묘를 자를 때에는 묘의 밑동 부분을 5~6cm(2~3마디) 남겨두고 자르는 게 좋다.

3. 채 소

- 고추 정식 3~4일 전에 비닐을 멀칭 하여 지온을 상승시켜서 뿌리의 활착을 좋게 하고 심는 깊이는 묘상에 심어져 있던 깊이로 한다.
 - ※ 깊게 심으면 지하부 줄기부위에서 새 뿌리가 나와 활착이 늦어지며 얇게 심으면 땅 표면에 뿌리가 모여 건조 피해 발생함
- 마늘·양파는 구비대기에 토양이 건조하면 토양 중에 있는 양분을 뿌리에서 흡수할 수 없음으로 비가 오지 않을 때 7~10일 간격으로 30~40mm 정도씩 2~3회 물 대기를 하거나 스프링클러로 물을 준다.
- 물을 많이 주거나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도 토양이 너무 습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배수구 정비를 철저히 한다.

4. 과 수

- 만개기부터 한 달간은 세포분열기로 과실비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포수가 증가되고 신초생장, 꽃눈분화 등의 생리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적당한 수분관리가 필요하다.
- 저온피해가 없는 과수원은 열매숙기보다는 꽃봉오리 숙기(적퇴)나 꽃숙기(적화)를 하는 것이 고품질 과실생산에 유리하다.
- 복숭아씨살좀벌 피해가 발생한 복숭아와 매실과원에서는 땅에 떨어진 과실을 모두 수거해 불에 태우거나 물에 담가 과실 속의 월동유충을 제거하고 수확할 때도 피해를 받은 과실이 과원에 남지 않도록 한다.
 - ※ 방제는 과실크기가 1cm 정도 되는 시기부터 약 7일 간격으로 2~3회 오전에 약제를 살포하여 성충과 부화하는 유충을 동시에 방제한다.